

묻고 답하며 찾아가는 역사의 진실

질문하는 역사

주경철 지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승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적합한 시선일까? 여기 한 사례가 있다. 신화 속 하나의 이야기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라가 재미있는 논쟁을 했다. 사랑하는 남자는 누가 더 행복한가 라는 토론이었다. 제우스는 여자가 더 행복하다고 했고, 헤라는 남자 쪽이라고 했다. 결론이 나지 않자, 남자라도 여자로도 살았던 테이레시아스를 불러 얘기를 듣기로 한다.

평범한 남자였던 테이레시아스는 산길을 가다 뱀 두 마리가 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작대기로 때어놓았다. 뱀들은 신통력을 발휘해 그를 여자로 둔갑시켰다. 테이레시아스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수년을 살았다. 그러다 다시 산길을 가다 또 뱀 두 마리가 붙어 있는 장면을 보고 때어놓았다. 그러자 뱀은 그를 이번에는 남자로 변모시켰다.

제우스는 테이레시아스에게 각기 남녀로 살아보이니 어느 편이 행복했는지 물었다. 테이레시아스는 여자로서 사는 것이 아홉 배나 행복했다고 답했다. 논쟁에서 진 헤라는 테이레시아스 눈을 멀게했고, 이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는 그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었다.

이러한 연유로 테이레시아스는 지혜의 존재가 된다. 그는 남자의 세계, 여자의 세계를 넘어 신과 인간의 세계를 넘나들며 삶을 해석한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역사는 한쪽만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테이레시아스처럼 역사



지옥, 연옥, 천국이 그려져 있는 단테의 '신곡'.

는 인간의 내밀한 심층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해석하는 프리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질문하는 역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역사와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것을 정리한 책이다. 20년 전 나왔던 책을 다시 출간하면서 수정한 결과물이다.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역사의 발인'에는 '독재 정치와 역사', '중국어 서쪽으로 가지 않은 까닭은', '유형과 사치 그리고 역사의 동력', '일본, 서구의 그림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중국어 서쪽으로 가지 않은 까닭은'은 흥미롭다. 서구 팽창주의에 앞서 중국인들은 1405년부터 1433년 사이에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갔다. 명나라의 환관 정화가 이끄는 대함대의 항로였다. 당시 중국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 중화세계 질서를 세

우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인도양을 순항하고 내린 결론은 "해외의 오랑캐들은 중화에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제국주의 없는 제국', 다시 말해 '자기 내부로 갇혀버린 제국'이 된 연유다.

2부 '문학 속의 역사'에서는 '지옥으로의 여행' (단테의 '신곡'), '악마의 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을 통해 역사와 문학의 공동 지점을 주목한다.

저자는 단테의 '신곡' 특히 '지옥'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옥여행은 영혼의 어둠을 헤치고 정신적 소생을 도모하는 여행이라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상의 악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악과 맞대면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옥으로 들어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산처럼·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이수정·이은진의 범죄심리 해부노트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상담심리 전문가인 이은진 정부서울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 마음나래 상담센터장이 함께 쓴 범죄심리 대장서다. 편집성 성격장애부터 강박성 성격장애까지 총 10가지로 성격장애 유형을 분류한 뒤 이 가운데 범죄로 이어진 일부 극단적 사례를 다룬다. 〈김영사·1만3800원〉



▲햇살을 향해 헤엄치기=가족과의 사별, 이혼 등의 상처를 안고 사는 주인공이 할머니의 옛 친구들을 찾아주고 그들을 도우며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를 다룬다. 저자 엘리 라킨은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다"며 "책은 따뜻하고도 눈부신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한다. 〈문학사상·1만6000원〉



▲미래 시나리오 2022="202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경제, 산업, 기술,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 4인이 뜻을 모았다. 저자들은 IMF, OECD, 세계은행, UN 등 주요 국제기구 최신 보고서 우리 관점에서 분석, 가장 필요한 주제만 추려 예측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독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

한 고 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집중했다. 〈와이즈베리·1만8000원〉

▲진짜 스페인은 시골에 있다=자칭타칭 '세계 시골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인 문정훈과 기자 출신 셰프 장준우의 여행기다. 책은 스페인 사람들의 삶이 들어 있다. 무더운 기후 탓에 점심 먹고 해가 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시에스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스페인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 등 우리와 다른 스페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상상출판·1만6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그 공 차요! =가족 조각 더미에서 축구공을 바느질하던 아이가 어디서 들려오는 "그 공 차요!"라는 외침에 공을 뺏긴다. 공은 스레키 더미의 아이에게, 또 이 아이가 찬 공은 공장으로, 전쟁터로 날아간다. 박규민 작가는 세계 곳곳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아이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길벗어린이·1만3000원〉

이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과정을 그린 동화이다. 캠핑카를 부러워하는 민준이를 위해 가족만의 캠핑카를 만든 아빠의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도 있다. 〈좋은책어린이·9500원〉

▲두근두근 캠핑카 =요즘 인기 있는 캠핑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놀러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주인공 민준이가 친구 준혁이네 캠핑카 화장실에서 엉뚱한 일을 벌인 후,

▲황금나무숲 = '반달곰 달곰이와 동물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보노보노' 작가 이가라시 미키오의 성장동화다. 뭐든 좋을 대로 생각하는 반달곰 달곰이와 여자친구 곰곰이, 핑크색 돼지 꼬찌, 두지 아저씨, 항상 말과 행동을 두 번씩 되풀이하는 산토와 돌돌이 등이 황금나무숲에서 자연과 여유롭게 좌충우돌 살아가는 동물들의 에피소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한솔수북·1만2000원〉

국가의 명운까지 바꾼다... 3000년 비밀첩보 활동의 역사

비밀 정보기관의 역사

볼프강 크리거 지음·이미옥 옮김



1970년 냉전시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영국에서 직접 첩보원 활동을 한 뒤 1960년대부터 스파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존 러카레이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옮긴 영화는 소련 KGB와 내통한 이중 스파이의 존재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2013년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둘러싼 이야기도 영화 '스노든'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스노든이 언론에 남긴 비밀 문서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전 세계의 전화를 도청하고 컴퓨터 및 데이터 프로그램을 감찰했는지 단번에 드러났다.

NSA가 테러집단 뿐 아니라 지원국을 비롯해 독일 메르켈 총리 등 외국 정상, 평범한 시민들까지 감찰 대상으로 삼은 내용은 전 세계를 분노케했다.

각 나라가 국내의 정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오래 지속됐다. 특히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을 통해 얻은 비밀 정보들은 세계사를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다.

독일의 역사가로 독일 마르부르크 필리프스 대학에서 국제관계사 교수를 역임한 볼프강 크리거가 펴낸 '비밀 정보 기관의 역사-파라오부터 NSA까지'는 비밀리에 행해지는 첩보활동과 고대부터 냉전의 종식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정보 기관의 역사와 이야기를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철저한 문헌 조사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인도차이나반도와 알제리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비밀 정보 활동이 역사적 배경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살펴본다.

책은 정보 활동이란 무엇인지, 스파이란 어떤 사람이 지부터 시작해 페르시아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3000년 동안 이어져온 비밀 첩보활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책은 독일을 위해 첩보 행위를 했다는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발한 보어전쟁에서 영국이 고전한 이유와 정보력의 관계 등에 대해 들려준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보전의 모습은 흥미롭다. 비밀정보 활동을 통해 얻어낸 무선 통신의 암호 해독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전세(戰勢), 히틀러 정권을 반대했던 독일 내 군부의 움직임과 히틀러 암살사건에 얽힌 이야기 등이다. 또 철권통치였던 소련의 스탈린이 나치 독일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적 트로츠키와 투쟁하기 위해 비밀정보부를 활용한 사례 등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밀 정보 업무와 사이버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한다.

책은 비밀 정보 업무로 인한 인권과 시민권의 침해, 정치적 통제를 넘어서는 활동에 대해 제어가 어려운 상황 등 비밀 정보 활동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심도있게 분석한다. 〈에코리브르·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